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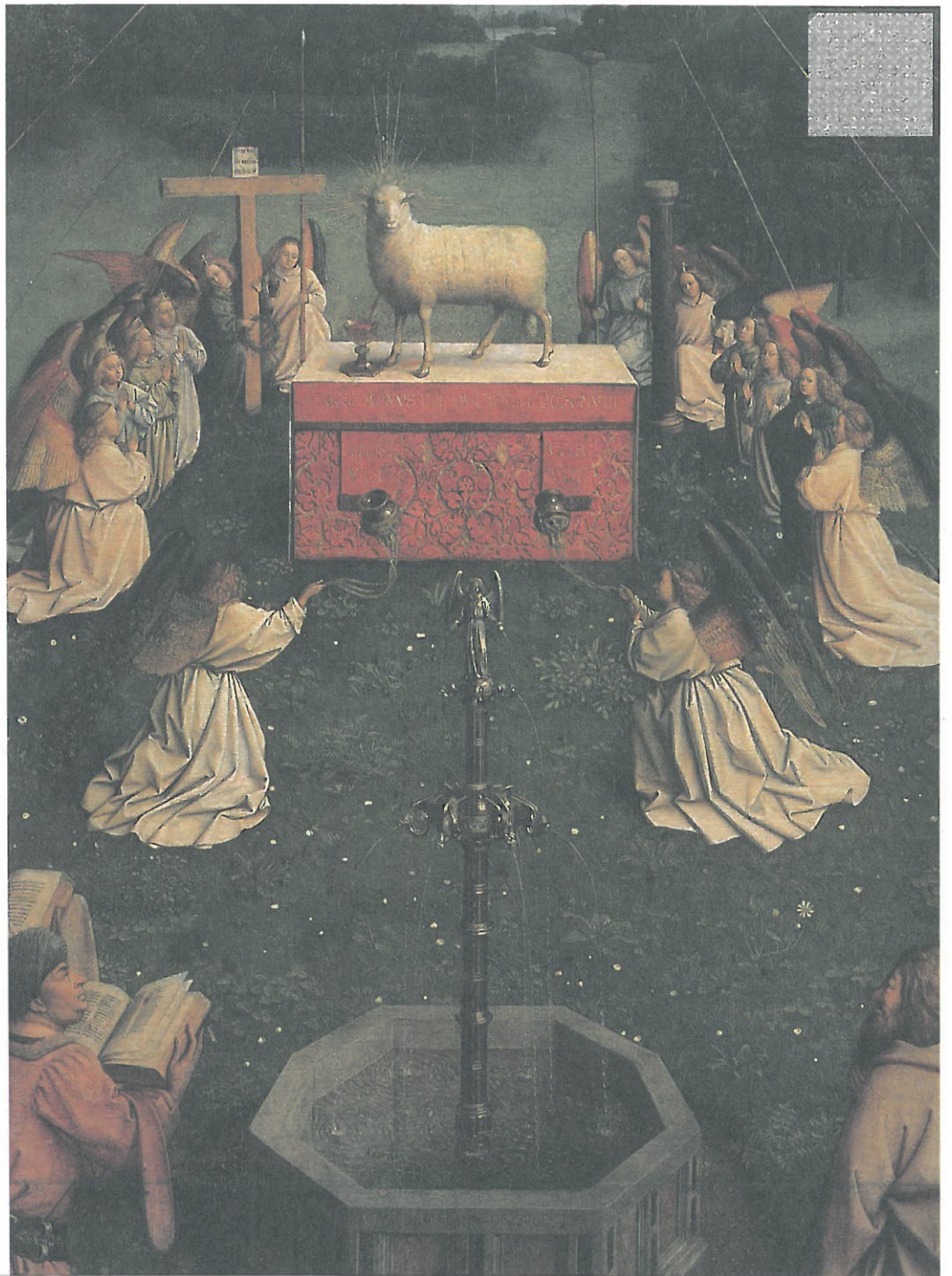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85호
2024년 1월 14일(나해)

연중 제2주일

양에 대한 경배(부분)

후베르트(Hubert, 1385-1426) &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1390-1441)
형제, 1432년, 다폭제단화,
목판에 템페라와 유화, 3.35x4.57m,
성 바프 대성당, 벨기에 겐트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1사무 3,3L-10.19

화답송 | 시편 40(39),2ㄱ과 4ㄱL.7-8ㄱL.8ㄷ-9.10(◎ 8L과 9ㄱ)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거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6,13ㄷ-15ㄱ.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1.17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 요한 1,35-42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



박경근 아우구스티노 신부 | 주교좌기도사제

오늘 복음을 통해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따라온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머무시는 곳을 묻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서 주저함 없이 그들을 초대하여 하루를 지내십니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 곧 예수님의 사는 모습이 안드레아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 대한 부르심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거처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마태 8,20)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가난한 순회 설교자가 머무는 자리였으리라 짐작됩니다. 화려함으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들과 벗하며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말씀으로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가난한 이들과 벗하는 삶을 사셨습니

다. 예수님의 가난한 삶은 당신이 선포하신 사랑을 증언합니다. 가난한 삶 안에서 가르침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모습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벗하며 가난을 사셨던 그분의 생애는, 말만 하고 정작 실행하지 않는(마태 23,3 참조) 당대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의 가난을 지향하며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은 믿는 이들이 복음적 가난을 살아가게 하며, 그러한 신앙인의 삶은 세상에 드러나는 빛이며 신뢰의 징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시몬을 케파라고 부르신 이야기가 알려주듯이 주님의 부르심은 믿는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나선 제자들의 생애는 알려줍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복음의 가난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양에 대한 경배(부분)

이 성화는 벨기에 성 바프 대성당에 있는 12폭 제단화 중, 어린양의 희생과 경배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양쪽 천사들을 통해 제대 위 피 흘리는 어린양이 그리스도이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붉은 제대에 가로로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신다.”, 아래로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미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화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담당

일상의 행복



차승원 요한 | 배우

최근 기자분들과 제 '일상'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던 저의 하루가 어떠한지 그려보려고, 전날과 그 전날, 또 그 전전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네 번은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집안일을 하며, 촬영장을 오갑니다. 촬영장이 특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배우인 제가 현장에 가는 건 회사원이 사무실에 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몇 년 사이 제 일상에 변화가 조금 있긴 합니다. 4년 전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강아지는 마당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침대 위에 강아지들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대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애네들이 제게 말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강아지들의 대소변도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변을 치우고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도 "안녕하세요?"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강아지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몇 가지 한 뒤, 다큐멘터리 1~2개 정도를 보면 어느새 하루가 금방 끝이 납니다. 그래도 저만의 소중한 일상들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촬영장 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 머물습니다. 저는 강아지들을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장소가 아무리 멀어도 집에 돌아오곤 하는 이유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제주도 촬영 때도 당일치기로 귀가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좋고, 저만의 루틴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일상은 심신을 평온하게 합니다.

연기를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1년에 한 번 씩은 꼭 디자이너 송지오 선생님 무대에 서는 일 역시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저도 만족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배우라는 직업의 미덕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는 현장 가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매일이 즐거운 삶, 저의 일상입니다.

요즘 저는 예전과 달리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좋은 평가와 사랑만 받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항상 제 선택이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과욕을 부릴 때도 있었고, 마냥 날카로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뾰족함을 어느 지점에서 내보여야 한다는 걸 압니다. 나 자신을 통제할 나이가 되었고, 그런 시간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진 모르지만, 지금의 일상이 된 모든 것들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이것 또한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요?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컷고리
환경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여행을 떠나며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참 설레는 일입니다. 일상의 바쁜 생활을 뒤로 한 채 훌쩍 떠난다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겠지만, 미리 여행의 목적지와 그 주변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또 먼저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읽으며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저절로 행복한 웃음이 입가에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라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지의 날씨는 어떤지,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맛집은 어디고 예약은 필요한지, 여행을 위한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면 다른 이들의 취향은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기분 좋게 출발한 여행도 잘못하면 피로만 쌓이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르코 복음사가와 함께 떠나려는 우리의 여행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 이 여행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마르코의 의도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코가 마련한 여행에 굳이 제목을 달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마르 1,1) 마르코는 우리에게 자신이 만나 나자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이 여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코복음을 함께 읽는 이 여행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분께서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진정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이 본 목적을 달성하려면,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된 바를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외적인 노력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행의 출발점에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복음의 기쁨》 3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자 한다면, 협조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마르코가 전하고자 한 예수님을 더욱 생생하게 만나고 그분과 친교를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마르코와 함께 걷는 이 여행은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루카 24,13-35 참조)과 함께 걷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음성, 그분의 힘 있는 말씀과 행적이 마르코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희망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 자연법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본당에 나가 특강을 하다 보면 신자분들께 “신부님, 이것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마태오복음 19장 16절의 부자 청년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는 모든 신앙인이 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 선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다소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는 때로는 엄격해 보이며 세상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이 정말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의지는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보편적인 구원 성취를 위해 인간에게 분명한 지도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자연법(*lex naturalis*)’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도덕 법칙이고, 보편적인 윤리를 위한 객관적인 토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법은 불변하며 언제나 근본적으로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느님의 법이므로 결코 파기될 수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어떤 시대가, 어떤 문화가 이를 어긴다 할지라도 결국 이성이 올바른 질서를 불러일으켜 다시금 되살아나게 합니다.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윤리적 가르침은 모두 이 자연법, 즉 계명에서 비롯됩니다. 사형 제도, 안락사, 낙태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이 이 계명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이 법은 이미 하느님께서 창조 때에 인간에게 새겨주신 것이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특정 문화와 사상이, 각각의 개인이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때로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죄가 비롯되고 죽음의 문화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계명을 어기는 죄를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회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완고하게 여겨진다면, 혹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자연법의 개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연법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하느님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말로 어른들이 생각하듯 청소년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을까요?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센터(서울A지T) 소장

첫 본당 보좌신부 시절, 70여명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겨울 피정을 하던 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수의 답변순으로 1위부터 5위를 정하고, 그 중 1위와 2위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나는 언제 하느님을 체험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둘 다 의외였는데, 2위는 '성체를 모실 때'였습니다. 1위는 더 놀라웠습니다. 바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이겨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별로 기도와 나눔을 하는데 많은 친구가 가정에서 겪는 부모님과의 갈등들, 어린 시절 상처들, 현재 고민을 조원들과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청소년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깨졌고, 그들도 하느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나 성당에서 젊은이들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속 예수님처럼 '와서 보아라.'(요한 1,39)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대화의 장', '식사의 장'을 통한 인격적 만남과 '기도의 장'과 '드림의 장'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했을 것입니

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지 하룻밤을 지내고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라고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도 예수님의 '와서 보아라!' 마인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면 자녀들은 청소년기에도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오시며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제와 수도자들, 교회 봉사자들은 더욱 예수님의 '와서 보아라!'의 마인드를 지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청소년들이 성당에 왔을 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장'과 영혼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 체험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오늘 복음에서 "와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인드, 즉 충만한 사랑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예수님표 만남'과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서 삶을 보여준다면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서 '팔레스타인 비극사',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에서' 신앙 전통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20세기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가 표현한 것처럼, 신앙인은 “한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신문”을 읽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계는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공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에게는 거리가 먼 전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종교적 차이, 혹자는 하마스 테러가 이번 전쟁의 원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역사 대부분이 그러하듯, 이 전쟁 이면에도 파열된 과거가 누적되어 있고 강대국의 식민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식의 지평 확장에 도움이 될 책으로 일란 파페의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 청소》와 라시드 할리디의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 이스라엘 건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종족 청소’에 기반했음을 주장합니다. 종족 청소는 다종족 상황의 특정 지역에서 인구를 균일화하기 위해 특정 종족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인데, 파페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건국 과정을 해석합니다.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다는 이스라엘의 서사가 실상 무자비한 폭력을 은폐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건국 과정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과정과 현재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을 보면 종족 청소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보입니다. 한편 할리디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으로 청소년기를 한국에서도 지낸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시온주의가 디아스포라와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이라는 ‘핍박받는 민족’의 서사를 내걸고 종교적 명분이나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지만, 분쟁의 본질은 유럽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 정착민에 의한 식민주의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 책은 서구 영화나 미디어, 학계에 의해 굴절되어 재현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담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저자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 것일까요? 두 책의 지향점은 모두 두 민족의 공존입니다. 파페는 이스라엘 폭력의 역사를 직시하는 데서, 할리디는 강대국이 삭제해 온 팔레스타인의 소리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다른 쪽의 생존을 부정하며 폭력에 의지하는 세력은 21세기 국제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안보’를 빌미로 증오에 기생하는 강경파를 물리치고 선의를 모아 공존을 도모할 때입니다. 국제사회는 공존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동등한 인정,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불법 정착촌 건설의 종식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야 ‘두 국가’ 해법이든 남아공식의 ‘진실과 화해’의 해법이든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 나라의 전쟁이지만 식민지 역사나 강대국의 횡포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에게 먼 이야기만은 아닌 현실을 보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루카 19,41-42)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월 18일(목)~25일(목)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기도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미사 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 미사: 2월 4일(주일) 오전 10시 차량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월 8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1매 1만 5천 원-조기 마감 가능)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내 1층 식사 및 성묘-개별준비
승차권 예매: 도림동성당 출발 / 신청: 02)833-9439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월 18일 박항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2019년 1월 19일 장홍선 요셉 신부(81세)

교구청 알림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월20일(토) 15시, 가톨릭회관 7층

주교좌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모집 파트: 테너, 알토 0명 / 문의: 02)774-1784
지원 자격: ①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② 다음의 성가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성악전공 4학기 이상 수강한 만 29세 미만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 자세한 문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조

시복시성기원 미사안내 및 전례단원 모집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1) 순교자현양위원회 시복시성기원 미사
이 달의 하느님의 종 '황 요한'
때: 매일 셋째주(화) 1월16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순교자현양위원회 전례봉사자 모집
대상: 전례봉사(해설, 독서) 관심있는 신자분, 매일 첫째·셋째주 화요일 미사에 참석이 가능한 분
활동: 순교자현양 및 시복시성기원 미사, 순교자 현양 행사 전례봉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된 본당' 미사)

때, 곳: 1401차 미사 1월1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강계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4년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작성 후 참석 바랍니다
대상: 자녀의 스카우트 대원 활동을 원하는 부모님 및 대장 봉사에 관심있는 성인
때: 2월3일(토) 14시 · 2월4일(일) 14시 중 택1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신청방법: <https://url.kr/mekhu6>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1월30일(화) 24시까지
문의(기타): 02)762-9857(화~토, 8시~17시)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홍덕희개인전: 1전시실
세상치욕 밝은 빛 4인전: 2전시실
예림전: 3전시실
전시일정: 1월10일(수)~18일(목)

2024 토요 성모신심

내용: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강의·미사: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10-8889-5425(문자)

'슬픔 속 희망찾기' 1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월20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김수규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제58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월16일(금)~24일(토), 3월16일(토)~24일(일)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회성) / 010-3340-0201

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1월25일(목)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영성센터(명동)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15명

젊은이 해외선교체험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신자) /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수녀회 젊은이사도직
 때: 7월17일~24일(7박8일), 필리핀 마닐라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때: 1월15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주제: "너 어디 있느냐?" / 대상: 35세 이하 형제
 때: 1월26일(금)~28일(일), 안토니오 피정의 집(서울) / 문의: 010-6608-3217

성모신심 피정(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1월22일(월) 9시10분~낮 12시 / 강의, 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최연희(이공강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지리산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3월1일~2일, 6월20일~21일
성지순례	2월23일~24일(대구교구), 3월19일~22일(제주교구)

2024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씨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75차	5월22일(수)~6월3일(월)	12박13일
77차	10월25일(금)~11월6일(수)	12박13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4차	2월9일(금)~17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5차	3월8일(금)~16일(토)	
제126차	4월19일(금)~27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한라산 눈꽃산행	1월26일~28일, 2월2일~4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자연순례	3월10일~12일, 3월16일~18일
성지순례	3월21일~24일, 4월13일~16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월20일(토)~21일(일), 2월24일(토)~25일(일)
3박4일	2월15일(목)~18일(일), 3월7일(목)~10일(일)
8박9일	1월29일(월)~2월6일(화), 3월14일(목)~22일(금)
40일	4월11일(목)~5월20일(월)

천사들의 기도모임(도미니코 수도회)

사랑하는 여러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때, 곳: 매월 셋째주(토) 14시,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3층 / 010-6289-5013 조 미카엘라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때, 곳: 3월28일(목) 16시~31일(일) 13시, 왜관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회비: 30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82-00018 (재)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월26일(금)~29일(월)·2월16일(금)~19일(월)·3월15일(금)~18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10주년 기념(명동성지 피정)

대상: 바오로가족협력자 회원, 레벤복스 회원
 때, 곳: 8월20일(화) 11시~16시,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프로그램: 강의 양은철 신부, 순례기도 모임별 회장단, 레크레이션 이해동 신부, 파견미사 이창항 신부
 문의: 02)944-8421, 010-9752-8421 바오로가족협력자회, 010-2557-1361 레벤복스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들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눈꽃산행 2월3일~5일·2월14일~16일·2월23일~25일·2월27일~29일, 3월1일~4일(추차도)·3월8일~10일·3월13일~16일(추)·3월18일~20일·3월23일~26일(추)·4월1일~3일·4월6일~9일(추)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하부내포성지 순례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들

도보	3월23일(토)	오성바위터-완장포구-서지골-삼터(도보구간) 도양골	출발: 7시40분, 서울 명동(대행버스) 회비: 1인 6만원
	4월27일(토)	새만금, 신시도-산막골(도보구간) 작은재, 독피골소	
일본	3월14일(목)~18일(월)	나가사키-소토메-상하 고토순례	회비: 1인 185만원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엄마와 딸(미혼) 피정	1월27일~28일, 3월23일~24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2월16일~18일, 3월1일~3일
세월의 지혜영성 피정	4월24일~5월3일 / 65세 이상
첫번째 기도학교	3월6일 개강(10주간)
품 그리기	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대관(30인 이하), 위탁 피정	소규모 피정, 연수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분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2월29일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영성센터 A201호 / 010-5236-5493, 010-5224-1108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서울시교육청등록 대안교육기관 사비오 학교
 대상: 14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savio.kr
 수업: 다큐멘터리, 연극, 바리스타, 요리, 제빵, 통기타, 검정고시 학업지원 / 문의(상담): 02)833-0930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대상: 이론제작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분 /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때: 1월25일~3월28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곳: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프로그램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영성·신학·교리·기도)
 때: 2월20일 개강 예정 / 2월16일까지 접수
 문의: 02)3276-7799(http://inagogress.kr) 10시30분~16시

기초과정(18주)	매주(목) 14시~16시(오후반), 19시~21시(저녁반)	권희성 신부 비대면 온라인
심화과정(18주)	매주(화) 14시~16시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1월16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비대면(Zoom, 구글미트)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현장 강의	그리스도와 불교 간의 대화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서명원 신부 김영근 신부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의	영성과 철학상담-이른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자기 치유-경계를 넘어서는 지혜(Trans-Sophia)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김영근 신부

CaFF영화제작워크숍 12기 수강생 모집

때: 3월6일~6월15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522호 / 배움의 기회를 잃은 성인을 위한
 교육부 학력 인정 어른 초등학교, 중학교, 한글, 기초영어
 반 학생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어 배움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선착순 접수 /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2차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 전문가 양성기관
 1월26일(금) 17시까지 접수 / 모집: 제1과정(예비
 과정-철학·신학 62학점), 제2과정(석사 과정)
 각 장학금 수업료 50% 감면 혜택
 문의: 02)2164-6521(cukgsc@catholic.ac.kr)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강좌·피정

곳: 삼성동 / 문의(접수): 010-3045-3845
 담당: 정규한 신부(예수회)
 1) 생활기도수련 7기 수련생 모집
 내용: 이나시오 영신수련 / 1·3·4년 과정
 때: 3월8일 개강 매주(금) 13시30분~16시
 강의 방법: 화상, 대면, 녹화강의 병행
 2)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15명)
 내용: 강의, 기도, 질의응답 / 회비: 3만원(점심 포함)
 때: 매일 셋째주(수) 10시~16시 1월17일·2월21일·3월20일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수험생 피정

회비: 18만원 / 문의: 02)727-2358
 신청방법: www.teenstar.or.kr
 1) 한국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
 대상: 가톨릭 인격적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
 때: 1월22일(월)~26일(금) 9시30분~17시
 곳: 영성센터(명동) B동 202호
 2) 수험생을 위한 몸·사·이 피정
 대상: 23년 수능 수험생(남학생)
 때, 곳: 1월27일~29일, 영성센터(명동)

모집

트리니타스여성합창단원 모집

때: (목) 10시30분 / 대상: 55세 이하 여성
 문의: 010-3871-4661 시스피나음악원(신촌)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2024년 중1~고1 / www.stvin.or.kr
 내용: 연탄봉사, 농촌봉사, 해외봉사, 환경 캠페인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청소년 리더십 양성
 문의: 02)926-3440, 010-6880-9605

카리타스 합창단 신입단원모집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
 대상: 55세 미만 남녀 교우 / 연습: 매주(월) 19시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 010-6304-1069 전형숙

가톨릭시니어합창단 단원 정기 모집

때, 곳: 1월31일까지, 서강대 앞 연습실
 대상: 55세 이상 신자 누구나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평화를 노래하는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가톨릭합창단 2024년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39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3월9일(토) 13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3월7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
 (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미사

살레시오회 성소 후원 미사 / 문의: 02)828-3522
 때, 곳: 매주(월) 11시,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월18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특강,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1월15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월22일(일) 14시 / 집전: 구요비 주교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초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
 해리현상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2024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2024년도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홈페이지(www.ijscen.or.kr) 게시판 참조
 문의: 02)726-0700, 0701 전·진·상 영성센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200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www.karf.co.kr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삼양동 선교분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가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
 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 작은 피정·주일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 청소년·청년 환영
 때, 곳: 매일 세번째(토) 1월20일·2월17일·3월16일
 16시~17시45분, 햇살사목센터 성당(해화로2길20)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치위생사 또는 치과 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
 인원: 1명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
 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물류, 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서울평단협 사무국 직원 모집

분야: 홍보 담당 간사 1명
 접수: 1월21일(일)까지 이메일
 서류: 서울평단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1부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중계동성당 방호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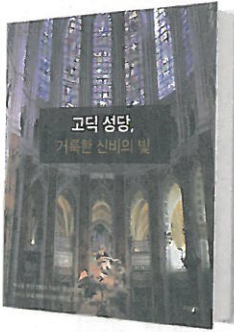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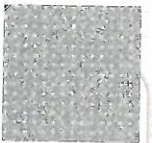
분야: 방호원(계약직 1명,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시설관련 자격
 중, 면허 소지자 우대 / 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분당 주민신부님 확인서
 1월21일(일)까지 우편(우01772,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
 길 80 중계동성당) 및 이메일(tinkey7@naver.com)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업무: 인원: 2027 서울 WYD
 행사 기획·조직 운영 담당 0명(PJT 계약직)
 영어 문서작성 및 회화 가능자, 관련 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분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분당 발급), 공인외국어 성적표
 사본(해당자)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월25일(목)까지 이메일(aoinss@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20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서울주보 알림 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고딕 성당,
거룩한 신비의 빛**

강한수 지음
파람북 | 256쪽 | 2만2천원
문의: 02)2038-2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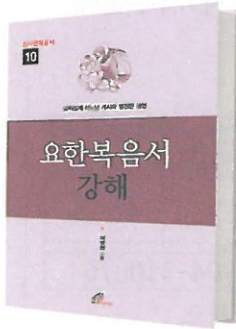
의정부교구 주보에 연재되었던 <성당 이야기>를 모아 출간한 <로마네스크 성당, 빛이 머무는 곳>의 후속편이자 중세 유럽 성당 이야기의 완결편이다. 서양 문명사를 통틀어 가장 역동적이며 극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딕 성당을 풍부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풀어낸다.



신간
영성적 인간

윤주현 지음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1064쪽
4만8천원 |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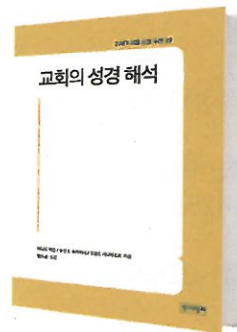
이 논문집은 저자가 스페인에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2011년 가을부터 2023년 봄까지, 전국의 신학대학과 서강대 등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번역한 논문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교의신학', '영성신학', '인간학', '토미즘'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실려 있다.



신간
요한복음서 강해

이영현 지음
바오로딸 | 692쪽 | 3만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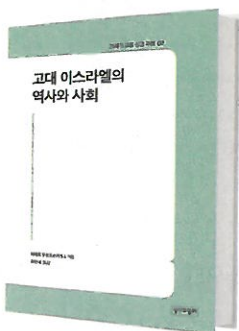
이영현 신부의 성서연학총서 시리즈 열 번째 책이다. 저자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꼼꼼하게 각주를 달고 폭넓게 보충 설명을 함으로써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쉽게 풀어준다. 가능한 한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저자의 편견이나 선입견과 자의적인 해설을 피하고,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참조하며 주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교회의 성경 해석**

버나드 맥긴·수잔 E. 슈라이너·도널드 시니어 C.P. 지음 | 성서와함께 | 220쪽 | 2만원
문의: 02)8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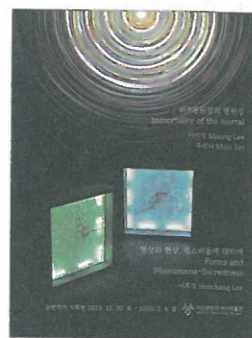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제29권인 《교회의 성경 해석》은 전체 33권 중 제29권이고, '주제별 논문' 부분이다. 교회의 성경 해석 역사를 다룬 논문 두 편을 묶은 책이다. 이 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결국 교회의 성경 해석은 이를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이야기한다고 알려준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02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

페테르 두보프스키 S.J. 지음
성서와함께 | 216쪽 | 2만원
문의: 02)822-0125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는 전체 33권 중 제2권이고, '성경 입문' 부분이다. 기원전 15-4세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와 사회를 설명한 이 책은 성경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는 데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동반작가 기획전**

일시: 2월 4일(주일)까지 9시30분~17시30분 (월요일 휴관) / 문의: 02)3147-2401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지하 2층 기획전실, 기획소강당, 지하 3층 하늘길, 지하 1층 전망대공간)

이 전시는 '스스 동반작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여는 첫 동반작가 기획전이다. '스스 동반작가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 3인의 신작을 소개하는 자리로, 그간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이후창의 '형상과 현상, 성스러움에 대하여'와 이미성·주미나의 '비(非)영원성의 영원성' 크게 두 개의 전시로 기획되었다.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복사단 겨울 캠프

일시 : 1월 15일(월)~17일(수)
 장소 : 용평 스키장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월 16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병자영성체

일시 : 1월 26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 중고등부주일학교 겨울 피정

일시 : 1월 26일(금)~28일(주일)
 장소 : 사도들의 모후 수도회 피정의 집
 대상 : 예비 중1~고2
 참가비 : 70,000원(현금 or 계좌이체)
 카카오�뱅크 3333-24-4281283
 신청기한 : 1월 19일(금)까지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금)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9,000원	3,5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8일(주일)

◎ 남성울뜨레야

일시 : 1월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뜨레야

일시 : 1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토요일문화학교 미술 선생님 모집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11시 ~ 15시
 수업장소 : 305호
 프로그램 : 1년에 총 4분기로 수업 진행
 ※ 한 분기에 12주 수업으로 총 12번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직접 준비하여 수업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력서 / olive2418@naver.com
 강사료 : 추후 면접시 상의
 문의 : 플로라 (010-5471-2416)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봉사자/그룹원 모집

24년 봄학기 성경 소그룹 나눔에 함께하실 봉사자와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 ~ 2월 셋째 주
 대상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과정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문의 : 사도요한 대표봉사자 (010-3223-5747)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산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비치)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8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1. 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21	181 (9%)	99 (4.9%)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이연기 마리아 상가 오십만원
 故 강대선 스테파노 상가 삼십만원
 故 황옥이 마리아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1월 1일~7일)

익명 일십만원 원정순 오만원
 강영자 오십만원 문정순 오만원
 익명 일백일십만원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김정자 오만원
 이지만 오만원 시니어대학 이백만원
 임대한 박천주 이십만원
 故 이연기 마리아 일백만원

◎ 우리들의 정성(주님 공헌 대축일)

교무금 19,315,000원
 주일헌금 5,774,100원

입당	9	봉헌	217,512,219	성체	156,188,172	파견	6
----	---	----	-------------	----	-------------	----	---



주님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